투데이 칼럼

당신의 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나는 대한민국을 "1년에 하루만"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90분만"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1분만" 사랑합니다. 당신의 나라사랑은 어떻습니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에서-

방송매체 공익광고의 문구입니다.

1년 중 특정 국가기념일 하루만 태극기를 달며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축구경기를 응원하는 90분만 대한민국을 외치고, 각종행사 식순에서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1분 동안의 묵념에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이 광고를 보면서 부끄러웠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라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태극기를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太極旗)는 1882년 제작된 후 1883년(고종 20)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었고,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기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 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2년 8월 9일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 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에 의하면 그 해 9월 박영효 일행은 배에서 태극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2007.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의 의미로 동양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태극(양과 음)이 만나서 8괘를 낳았는데, 8괘는 건(乾)은 하늘, 태(兌)는 못, 이(離)는 불·태양, 진(震)은 우레, 손(巽)은 바람, 감(坎)은 물·달, 간(艮)은 산, 곤(坤)은 땅을 상징합니다. 결국 태극기는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의 의미로는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괘인 사각에 위치한 건곤감리(乾坤坎離)는 원래는 8괘를 상징하면서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얀 바탕은 밝음과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미 깊은 태극기의 관리 방법을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는 아주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기가 더러워졌을 때 세탁하면 안 되고, 태워버리는 게 옳은 방법이었는데, 현행법상 요즘에는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태극기의 올이 풀리지 않을 정도에서 세탁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고 다림질도 가능합니다.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다면 가위로 자르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소각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태극기의상 패션쇼, 모바일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우리와 많이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바로 알고 다는 것이 나라사랑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나라사랑은 어떻습니까?

사 설

지금은 인구 고령화 대책 세워야 할 때

지금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전북지역의 인구 고령화 현실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다. 도내의 현실을 보면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1년 2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북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에게 저번에도 언급했거니와 곧 닥쳐올 미래의 곤란한 현실과 관련해 지금 이마를 짚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정확하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가 넘는다는 보도 기사를 읽은 게 오래 전이다. 그것은 29세 이하 젊은이의 인구 비율이 18%대를 간신히 턱걸이 했던 것과 비교가 됐다. 아마 지금은 상황이 더 안좋아졌을 것이다. 신세대는 줄고 있는데 구세대만 늘고 있으니 지역의 앞날이 딱하다. 이대로라면 전북의 미래가 염려스럽다. 청년 감소와 맞물려 거주 인구의 하향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역시나 고민거리다.

전북도는 인구 고령화 현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북도는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이 작지 않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분발해야겠다.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다 발표 되는 일자리 통계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이다. 지난 1970년대 이래로 출향한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상도나 충청도 쪽에 눌러 살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내 인구 고령화 현상을 막으려면 전북도는 청년 고용의 환경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지역의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 고령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에 목이 마른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없다면 곤란하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영농철, 농가의 일손 부족에 관심 가져야

여름철을 맞아 농가의 일손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와 군에게 주는 당부이다. 우리 지역이 전국 최고의 농도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지만 그게 말뿐이고 전혀 실속이 없는 것이다. 농민들은 그 같은 표현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인구가 하향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하고도 분명히 상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농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 둘이 아니다.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하고서는 향토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발전이 없다면 지역의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촌의 밝은 부면만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게 아니다. 연 수입 1억이 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

거듭 강조해 말하거니와 도내에는 부농보다도 빈농들이 더 많다. 도내에는 아직도 소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이 대다수이니 말이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던 바이지만 농가들이 농삿일을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노인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농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농가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물가 오름세가 있을 때도 농산물의 시세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나이 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 납득이 안 되는 것일 터이다.

전북도와 시 군 지자체가 농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다. 도내 거주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은 지역사회의 오랜 고민거리이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 지역을 보면 빈집이 수두룩하다. 전북도의 농정 관계자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그래서 올 여름 폭염 때에는 실제로 무언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이주민들 우리 사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오늘날 세계는 국가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이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2억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을 떠난 이민, 노동, 결혼, 유학,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희망과 꿈을 갖고 타국 생활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국제 이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의 처지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고용업체에서는 언어폭력 등 폭행사건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에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고, 사회적 제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우리사회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나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경장 방극선

독자제언

가정폭력·아동학대 적극 신고 더 큰 피해 막아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거나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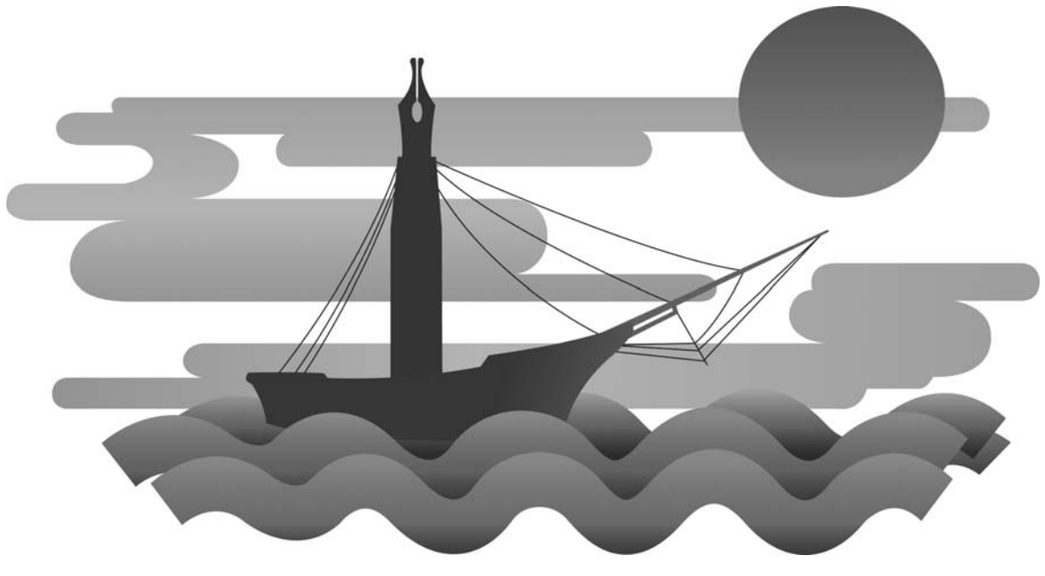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폭력 행사로 이어지거나,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그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으로, 가정 내 개인적인 문제 및 이혼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고, 아동학대 또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아직 어려 부모님의 학대행위를 단순히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실정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피해자의 미래를 바꿀수도 있다.

이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하고, 내 이웃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 혹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 해야 할 것이다.

이현국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